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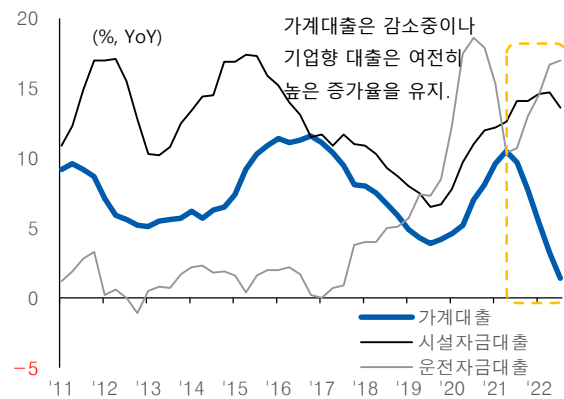


금리와 대출과 투자수요

1.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추이

- 전 금융권 대상 가계대출의 전년비 변화율은 2015년 이후 최초로 금년 11월 기준으로 역성장을 기록.
- 기업대출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. 항목별로 보면 시설대출이 10%대 초반을 유지중이며, 운전자금대출도 10%대 중반에서 유지되는 중.
- 이는 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 등에 대한 니즈는 수요와 무관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.

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확대로 가계대출을 급감하였으나 기업대출은 여전히 수요가 많은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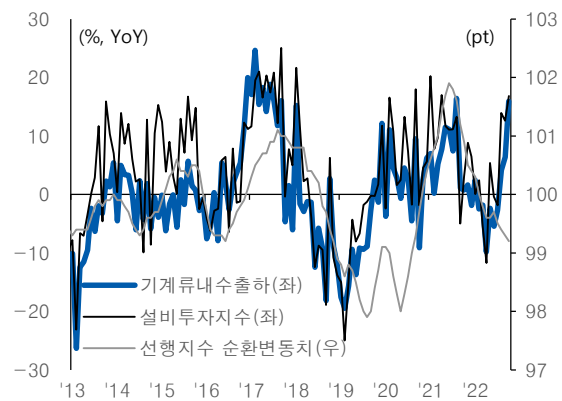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2. 수요변화와 투자변화

- 한국은행 연구에서는 금융비용 부담에 따라 DSR이 1%p 상승할 경우 연간 소비는 -0.37%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.
- 기업대출에서는 비용부담을 시장에 전가시켜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별 대출금액의 증가속도가 일정 수준 유지.
- 설비투자는 순환사이클 측면에서 개선세가 유지되기 때문에,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방어할 수 있는 항목.

설비투자 상승 국면이 진행된다면 선행지수 구성요소인 기계류 내수출하 개선과 선행지수 회복에 기여



자료: 통계청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1.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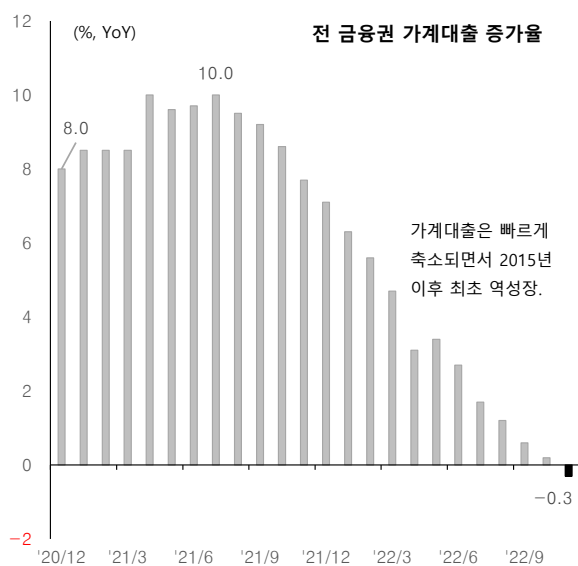
기준금리의 빠른 상승으로 인한 시중금리 상승은 대출시장에서의 경제주체 행동변화를 크게 가져오고 있는 중이다. 이자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가처분소득의 감소와 연결되고, 이는 대출을 축소시키는 행태로 변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실제로 전 금융권 대상 가계대출의 전년비 변화율은 2015년 이후 최초로 금년 11월 기준으로 역성장을 기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. 이는 지난해 초 당시 8~10% 수준의 전년비 증가율을 기록하던 것에 비하면 큰 폭의 감소세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. 특히 신용대출의 하락은 직접적인 구매력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.

가계대출은 급격한 하락을 보이면서 경제에의 위축 신호를 보내주고 있지만 기업대출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확인된다. 항목별로 보면 시설대출이 10%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, 운전자금대출도 10%대 중반에서 유지되는 중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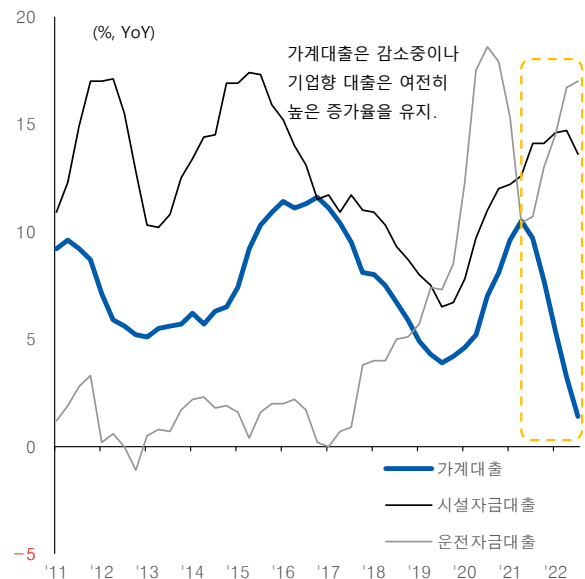
결국 이러한 모습은 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 등에 대한 니즈는 수요와 무관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된다. 특히 내구연한 및 순환사이클상 설비투자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.

[차트1] 금리인상은 가계대출을 빠른 속도로 위축시켜 잔액 기준 가계대출이 전년비 감소세로 유입.



자료: 금융위원회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2]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확대로 가계대출을 급감하였으나 기업대출은 여전히 수요가 많은 상황.



자료: 한국은행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2. 수요변화와 투자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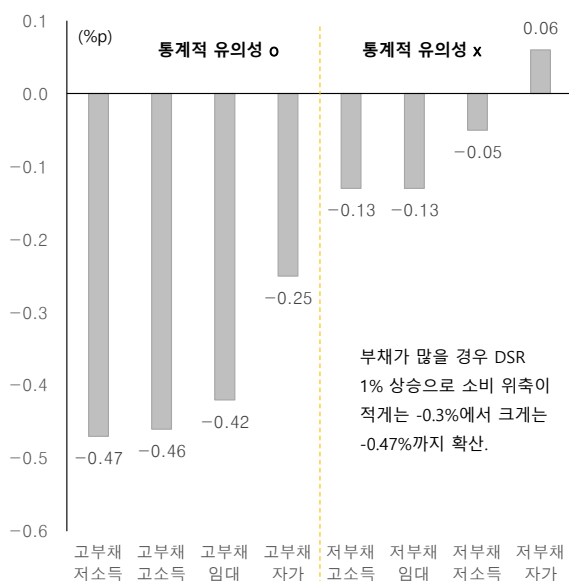
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취약계층의 필수재, 중산층 이상의 재량적 소비 감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. 특히 DSR이 1%p 상승할 경우 연간 소비는 0.37%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.

특히 부채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면서 소득이 낮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을수록 DSR의 1%p 상승이 소비를 0.40~0.47%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당연한 결과이겠지만, 이러한 급격한 금리상승과 원리금상환부담 확대가 소비평활화에 부담을 주게 되고, 이는 경기변동의 진폭이 커질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.

한편 현재와 같은 금리상승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.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부담을 수요자에게 전가 시키면서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별 대출금액의 증가속도가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것이 확인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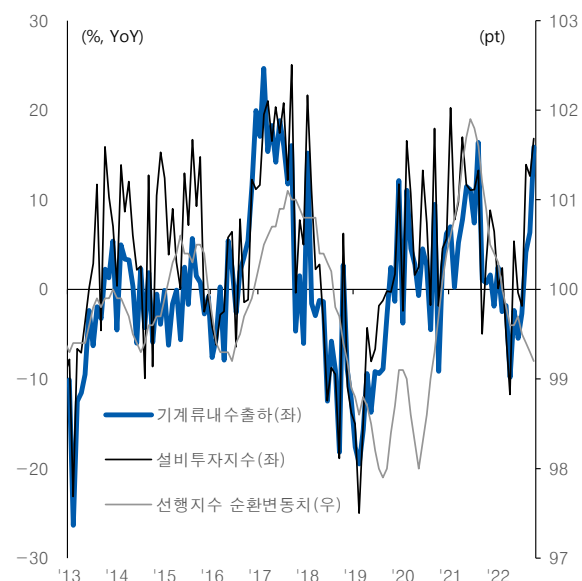
결국 시중금리의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설비투자는 순환 사이클 측면에서 개선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 향후 경제성장의 경로에서도 소비의 개선은 제한적이지만 투자의 증가로 성장을 둔화를 방어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[차트3] 원리금상환비율이 1%p 상승하면 부채를 많이 보유한 가구의 소비는 -0.25%p~-0.47%p 감소.



자료: 한국은행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[차트4] 설비투자 상승 국면이 진행된다면 선행지수 구성 요소인 기계류 내수출하 개선과 선행지수 회복에 기여.



자료: 통계청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